

六 바다를 뱀송야 모든 사람이 되게 하시며 사람이 밭노 한슈에 행송였
 스니 거귀셔 우리가 주를 인송야 깃버송였도다
 七 조귀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 분이 만국을 감찰송시니 거역송
 느자가 스스로 볼흔혜송지말지니라 (셀나)
 八 만민들아 너희는 우리 하느님을 찬송송고 찬송 소리를 뜻게 흘지어다
 九 주셔셔 우리의 평화를 살게 두시고 우리의 실족송을 용납지아니송시
 도다
 十 하느님이여 우리를 시험송시티 은을 단련송을 못치 우리를 단련송셨느
 이다
 十一 주셔셔 우리를 그물에 드러가게 송셨고 고초를 우리 허리에 두셨도다
 十二 주셔셔 사람으로 우리 머리를 밟고 물을 달나게 송시며 우리가 불과
 十三 물에 드러갓더니 오직 주셔셔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나오게 송셨느
 이다
 十三 내가 주의 법에 드러가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 멩제송을 주셔 감송
 리이다

十四 이 멩제는 내 입술에서 나온 말이니 환난 때에 내 입이 온 말이로 소이다
 十五 내가 살진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고 슈양으로 향송삼아 드리티 내가
 슈 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나)
 十六 무릇 하느님을 두려워송닌 너희는 와서 드리타 나의 평화를 위송샤
 행송신 거슬 내가 전송갓노라
 十七 내가 내 입으로 주셔 불니 알외고 내 혀로 주를 님히 찬송 송였도다
 十八 만일 내가 내 중심에 악한 거슬 생각송면 주셔셔 나를 뜻지아니송
 시리로다
 十九 하느님셔셔 참으로 나를 드르셨고 나의 기도송닌 소리를 꿈어 드르셨도다
 二十 하느님을 찬송송제 나의 기도를 들니치지아니송시고 또한 그 인즈송
 심을 내게셔 거두지아니송셨도다

평창을 직히 거문고에 맞출
 저지나 시요 노래라

一 하느님은 우리를 긍휼히 녀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 영를 밧치
 우리에게 밧치게 송시옵쇼셔 (셀나)

二 ㅅ에서 주의 길을 사들에게 알게 하시며 주의 구원능심을 만국 중에 알게 하시옵소서

三 하나님여 만민이 주께 사레하게 하소서 만민은 다 주께 사레할지어다

四 만국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높히 부르짖니 주께서 의를 좇차 만민을 굿문하시고 ㅅ 우에 만국을 다스리시리이다 (셀나)

五 하나님여 만민이 주께 사레하게 하소서 만민은 다 주를 사레할지어다

六 ㅅ이 봉성함을 내었스니 하나님 곳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ㅅ 님까지 다 주를 두려워함리로다

九

다윗의 시요 노래나 평창을 작하여 지시라

一 하나님여 나리나사 그 원수를 웃히시옵소서 주를 인함은자가 그 압헤서 도망함리로다

二 연리가 물려가니 그 곳치 주께서 너희를 물아 내시며 밀이 불 압헤 누는 것 곳치 악인이 하나님 압헤 멸망할지어다

三 오직 의인은 즐거워하며 하나님 압헤서 깃버 셀 거시오 즐거워함으로 희락할지어다

四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일음을 찬양하라 듣고 광야에 행함은이름 위함야 태도를 다그라 그 일음은 여호와시니 너희가 그 압헤서 깃버 셀지어다

五 하나님은 외로운 족속의 아버지시오 과부의 재판관이시니 곳 거룩한 집에 거함시도다

六 하나님이 홀노되자로 권속 안헤 잇게 하시고 가친자로 나와서 복을 잇게 하시되 오직 거역함은자는 떼트른 ㅅ에 거함도다

七 하나님여 주의 빛성을 인도함야 나가사 광야에 행음실 때에 (셀나)

八 ㅅ이 진동음고 하늘이 하나님 압헤 떠러졌스니 하나님 압곳이 스타셀의 하나님 압헤서 더 시니산도 진동음였도다

九 하나님여 너희를 비를 내리샤 주의 산열된 빛성이 곧비출 때에 위로 향섯나이다

十 주의 무리가 그 가운데 거함오니 하나님여 공평한자를 위함사 선용

- 十一 심을 예비하셨느니라
- 十二 주께서 말씀들을 주셨스니 전파하는 여인이 온 무리보다
- 十三 군사를 거느린 열왕은 도망하고 도망하니 근략한 물건을 집에 거할 여인도 또한 은호도다
- 十四 너희가 디경 안에 무엇을 제 마치 비록이 들지혜 은이로 남기고 그 것에 황금으로 심힘 곳도다
- 十五 전능하신자가 열왕을 혼 혼실 때에 곳 분을 살문에 그림과 곳도다
- 十六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오 바산의 산은 여러 봉이 있는 산이로다
- 十七 여러 봉이 있는 산들이 었지용야 하나님께서 거흥고저흥시는 산을 눈뜰여 보노보 대져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거흥시리로다
- 十八 하나님의 병거가 이만척이오 천만척이니 주께서 그 중에 폐서 성소에 류흥심이 시대산에 류흥심과 곳도다
- 十九 주께서 우으로 올라가서 사로잡힌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사름의게 밧으 셧스니 곳 거역할자의게 밧으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곳치 폐시라흥 심이로다

- 十九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를 찬송응세 우리를 구원흥시는 하나님 이시로다 (셀나)
- 二十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니 스망을 면함이 주 여호와께서 속흥엿도다
- 二十一 하나님이 그 원수의 머리를 상흥게 치시되 죄악을 흥상 짓는자의 명슈 리를 치시리로다
- 二十二 주께서 날으샤타 내가 너희를 바산에서 다시 쓰을고 오며 바다 깊은 티서 다시 쓰을고 와서
- 二十三 게 발노 피를 붉게 흥고 네 개가 허로 원슈를 할터 머게 흥리로다
- 二十四 하나님이여 너희가 주의 흥흥심을 보았느니 곳대 하나님 내 왕의 거룩한 곳에 흥흥신 거시로소이다
- 二十五 노태흥근자가 압히 흥흥며 통류치는자가 무에 좃차 쇼표 돌너는 폐정 의희 중에 가도다
- 二十六 대희중에서 하나님을 찬송응세 이스라엘 조손들은 주를 찬송흥지어다
- 二十七 거대한 너희 왕적은 벤야민이 있고 유다의 방벽과 그 무리도 있고 또

스블노의 방벽이 있고 남달나의 방벽이 잇도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명동야 힘이 잇게 흥시켰스니 하나님이라 우리를
 위호사 흥흥신 거슬 곳게 흥시웁쇼셔
 예루살렘에 잇는 주의 면을 인호야 별왕이 레물을 받들고 주께 나아
 가리로다
 주는 갈밭 스이혜 틀 증성을 썩지조시고 모든 슈 소와 만민의 송, 지를
 썩지조시고 인 돈을 밭으쇼셔 하나님께서 싸호을 즐겨흥는 백성을 흥흥
 셧도다
 애굽에서 방벽이 오고 구스 사람들이 속히와셔 하나님을 향동야 손을
 퍼리로다
 사의 만주들이 하나님을 노래흥며 주께 찬양흥지이다 (셀나)
 그 뜻져 하노의 하노을 듣고 계신이를 찬양흥지이다 그 소리를 받흥
 지니 못 쥬 소리로다
 맛당히 흥흥을 하나님께 돌닐지니 그 위엄이 이스라엘 우에 잇고 그
 흥흥이 하노에 잇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위엄이 주의 성소로 말미암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쟈서 권과 흥흥으로 그 백성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양흥지이다

卷

다윗의 시니 평장을 작히 비합화
 목도히 맛출 노래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흥쇼셔 대개 물이 나의 영혼에 드러왔나이다
 내가 깊은 슈렁에 빠져 흥흥 설 곳이 없고 내가 깊은 물에 드러가매
 파도가 내게 잠겼도다
 내가 불너 알외며 피곤흥고 내 목구멍이 무리며 내 눈이 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쇠흥였도다
 무고히 나를 위흥흥자가 나의 머리 쉼보다 만흥며 나를 멸망흥랴흥
 흥자 곳 꿰흥흥내 원슈가 강흥흥였스니 내가 목탁흥지아니흥 거슬
 썩흥 물어주게 되흥도다
 하나님이여 나의 미련흥흥을 아시나니 내 죄가 주께 숨김이 없나이다
 만유의 주여 호와야 주를 보라흥자로 나를 인흥야 벗그림지말게 흥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흥자로 나를 인흥야 욕보지말게 흥시

울쇼셔

七 내가 주를 위하야 혜방을 밧음으로 뭇그러움이 내 영골을 덜렸노이다
八 내가 내 형제의게 나그네 조치되며 내가 내 어머니 아들의게 외인과
조도다

九 대개 주의 면을 위하야 조절할 거시 나를 삼켜 멸후게 향였스오니 주를
혜방^하호느 모든 혜방이 내게 밧쳤도다

十 내가 곡하고 근식홀이로 내 령혼을 경계하다가 도록히 이를 인하야
욕을 밧았도다

十一 내가 깊은 회로 내 옷을 지이니 사람이 나로 우습거리틀 삼았도다

十二 성문에 안준자들이 나를 평롱하고 취호자들이 노래로 나를 괴롱호도다

十三 여호와여 오져 나는 귀도를 주쳐서 기버호^실 뻬에 드리노이다 환스김
이여 인조^호심^이 만호^시니 구원^호의 진실^호심^을 인하야 내게 응답^호
시^옵쇼셔

十四 나를 슈령에서 건지샤 싸지^지말^게 호시며 나를 뒤편호느자와 김흔
물에서 건져내게 호시^옵쇼셔

十五 온 물이 내게 넘쳐^지말^게 호시고 김흔 물이 나를 삼키^지말^게 호시며
웅령이가 그 입을 닫쳐서 나를 가치^게 마^시옵^쇼셔

十六 여호와여 주의 인조^호심^이 아름다오니 내게 응답^호시며 주의 증출^호
실이 만호^시심을 조쳐샤 도리^켜 내게 향호^시옵^쇼셔

十七 주의 낮줄 주의 종의게 그리우지 마^시옵^쇼셔 내가 환난을 밧았스오니
속속히 내게 응답^호시^옵쇼셔

十八 내 령혼의게 갓가히 오샤 구속^호시며 내 원슈를 인하야 나를 속람^호시
옵쇼셔

十九 주^쳐서 나의 혜방과 뭇그러움과 욕 밧음을 아시느니 나의 티력이다 주
알해 있노이다

二十 혜방이 내 무음을 썩즈매 근심이 그득^호느니라 내가 증출^호된 역일^자를
브라^되업고 안위^호를^자를 브라^되었지^못향^였도다

二十一 너희가 썩기를 머을 거스로 내게 주고 내가 목목을 뻬에 조로 내게
마시우도다

二十二 너희의 법상이 그 암해셔 뻬하야 덜지^되게 호시며 그 평안^호를 거시

- 三 三 번홍야 그물이 되게 흥시옵쇼셔
- 三 三 더희 눈이 어두어 보지못하게 흥시며 그 허리가 늘셀니게 흥시옵쇼셔
- 三 三 주의 노농심을 더희 우에 부으시며 주의 명렬은 분노농심이 더희를 좃차 밋치게 흥시옵쇼셔
- 三 三 그 거흥는 곳이 뷔 터만 되게 흥시고 그 장막에 거흥는 사람이 엄게 흥시옵쇼셔
- 三 三 대개 주셔셔 사리신자를 더희가 궤박흥고 주셔셔 상케 흥신자의 근심을 더희가 말홍느이다
- 三 三 주는 더희 죄 우에 죄를 더홍샤 주의 의로움에 드리오지못하게 흥시옵쇼셔
- 三 三 더희를 성명 책에 흥리시고 의로운자 중에 더룩지못하게 흥시옵쇼셔
- 三 三 오직 내가 구뵤흥고 근심흥오니 하느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홍는 곳에 두시옵쇼셔
- 三 三 내가 노래로 하느님을 찬송흥고 또 감사함으로 드시다 흥리로다
- 三 三 이 거시 여호와께 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시게 홀이니 쌀과 같이

잇는 황소보다 낫도다

- 三 三 겸손홀자들이 이를 보고 즐거워흥니 하느님을 찾는 너희의 마음이 활발홀지어다
- 三 三 여호와는 빈궁홀자를 드르시고 또 홀 죽귀를 인홍야 가천 사람을 엄수히 보지아니흥시도다
- 三 三 하늘과 사이 주를 찬송흥고 바다와 무릇 그 가운데 동물들이 다 찬송홀지어다
- 三 三 대개 하느님께서서 시온을 구원흥시고 유다의 각읍을 세우시매 그 백성이 거기 거흥리니 죽귀의 유성이 되리도다
- 三 三 그 종의 죽손이 또홀 니어 밧으리니 그 일홍을 스람흥느자가 그 앞에 거흥리도다

후

다윗이 크별케 흥느시니
혈장을 작히 홀 노래라

- 一 一 하느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쇼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쇼셔
- 二 二 내 령홍을 찾는자들노 붓그러워 무안하게 흥시며 나의 해 팀은 즐거

一 위항근자로 물너가 욕을 받게 하시옵소서
 二 말흥기를 더 거슬 보라 더 거슬 보라 하니 이런 사람으로 못그러움을
 인흥야 물너가게 하시옵소서
 三 무릇 주를 구항근자는 주를 인흥야 희락하며 깃버하고 또한 주의
 구원을 사랑항근자는 흥상 빛을 크시도다 여호와여 출지어다
 四 나는 궁곤하고 잔잔흥자니 하나님이며 속히 내게 오소서 주는 나의
 도의심이오 나를 건지시느니라 여호와여 더디지마시옵소서
 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함오나 나를 영원히 못그림지말게 하시옵소서
 六 주의 의로오심으로 나를 건지시며 나로 피하게 하시옵시고 귀를 내게
 기우리샤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七 주는 나의 거울 반석이 되샤 나로 흥상 도라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명함샤
 나를 구원하셨스니 대개 주는 나의 피쌍리시오 나의 산성이로소이다
 八 나의 하나님이며 나로 악인의 손을 피하게 하시며 불의흥자와 강포
 흥자의 손바닥을 피하게 하시옵소서
 九 주여호와여 나의 소망이시니 이려서브러 의지흥자시니이다

一 내가 티에서브러 주의 못그림이 되고 주께서 나를 어미의 뱃에서
 나오게 하셨스매 늘 주를 찬송흥리이다
 二 내가 만흔 사람의게 괴이흥바 되었스니 오직 주는 나의 피쌍을 얻고흥
 뜻이니이다
 三 주를 영화롭게 함과 주를 찬송흥이 종일도록 내 입에 스터흥리이다
 四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마옵시며 내 힘이 쇠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五 내 원슈가 나를 말흥고 내 령흥을 영보근자가 서로 세흥야
 六 날을히 하나님이며 더를 썬나셨스니 뒤를 썬라 잠이라 구원흥자가 없다
 흥니이다
 七 하나님이며 나를 멀니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속히 와서 나를
 도의소서
 八 내 령흥의 원슈가 못그러움과 멸흥을 보고 나를 모해항근자가 욕과
 업수히 녀임을 밧을지어다
 九 오직 내가 흥상 보라고 내가 주께 찬송흥기를 더흥고 더흥리이다

- 十五 내 입이 주의 공의를 말하고 종일 주의 구원희생을 말하노는 거슨 불가 승수로소이다
- 十六 내가 와서 주여호와와 의행동신은 능을 찬양하고 주의 의를 날마다 그리니 오직 주의 의심이니이다
- 十七 하나님이라 나를 어렸을 때부터 부르시셨스니 오늘날까지 주의 크이힘 일을 전파하였노이다
- 十八 하나님이라 내가 늙어 머리 셀 때까지 나를 떠나지마옵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보이고 주의 능력을 모든 자에게 보일 때까지 떠나지 마옵소서
- 十九 하나님이라 주의 의로오심이 지구히 돌흔시도다 주께서 온 일을 행하 셧스니 하나님이라 누가 주와 닮히릿가
- 二十 만코 종흔 고난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니샤 따의 곁은 티셔 올라오게 하시리다
- 二一 주께서 나의 존귀함이 더욱게 높음시며 또 도리키샤 나를 위로함시 옴쇼셔

- 三二 내 하나님이라 내가 비파로 주께 사례할 거슨 주의 진리를 인물이오 내가 거문고로 주께 찬양할 거슨 이스라엘의 거룩한신자를 위함으로 소이다
- 三三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설이 크게 즐거히 부르고 주께서 구속 한신 내 영혼도 그리함리이다
- 三四 내 혀도 종일 주의 의로오심을 말하리니 대개 나를 모해함은자가 붓그 럽고 무안하였노이다

差

시칠십의
시라

- 一 하나님이라 주의 판단함은 권을 왕에게 주시며 주의 의를 왕의 아들 의게 주시옵쇼셔
- 二 내가 주의 백성을 의로 심문하고 주의 권고한자를 공의로 응리이다
- 三 산들이 의로 평안함을 백성으로 우리에게 송고 뉘리들도 그러함리도다
- 四 왕이 백성 중 권고한자를 판단하며 빈궁한자의 죽식을 구하고 포한한 자를 때때케 함리이다

五 더희가 쥬를 두려워흥기를 날이 있고 트이 오래도록 티티로 흥리이다
 六 그가 버힌 물우에 느리느비와 두치 림흥리니 싸를 쟁시느 장마비와 두도다
 七 그 배를 당흥야 의인이 흥황흥고 말흔 평안흥이 있서 트이 폐흥
 八 배까지 맛츠리로다
 九 왕이 바다로브리 바다까지 맛하 다스리고 하슈로 브리 싸 맛까지
 一 너르리로다
 二 광야에 거흥느차가 그 알헤 절흥고 그 원슈가 영티어 티들흥을 할리리로다
 三 다시스와 바다 섬의 왕흥들이 레물노 조공흥고 스바와 시바의 왕흥들이
 四 조공흥을 밋치리이다
 五 만왕이 다 그 알헤 부복흥며 만국이 다 섬기리로다
 六 빈궁흥자가 부르지질 때에 건지시고 들느이 영근 잔나흥자를 쏘흥 건지
 七 시리로다
 八 약흥자와 빈궁흥자를 불쌍히 녀이시고 빈궁흥자의 령흥은 구원흥시리로다
 九 더희 생명을 제사와 강포흥에서 구속흥리니 쏘흥 더희 피가 왕의
 一 목전에 보비가 되리로다

十 더희가 살며 사름들이 스바의 금흥을 드리고 흥상 그를 위흥야 사름들이
 一 귀도흥고 쏘 흥일 찬흥흥리로다
 二 산썩다이에 잇노싸헤도곡서이 흥셴흥고 그 파설이 흥들흥이 리바논의
 三 산림과 흥흥을 거시니 흥에 잇느자가 싸에 불과 두치 무셴흥리로다
 四 왕의 일흥이 영원흥이 잇스리니 그 일흥이 날 잇흥을 흥안흥 흥상 잇서서
 五 사름이 그를 위흥야 흥흥을 흥흥을 거시오 만국이 흥흥리리 흥흥다 흥흥리로다
 六 여호와 하느님 곳 이스라엘의 하느님흥 찬흥흥흥지니 흥흥노 귀이 흥 일흥을
 七 흥흥시느자시로다
 八 그 흥흥로온 일흥흥을 영원흥까지 찬흥흥흥지니 흥 사이 그 흥흥흥으로 흥흥
 九 흥흥지어다 아멘 아멘
 一 이책의 흥흥 흥흥이 귀도흥고 시를 흥흥이

예삼권

시하삼의

총

- 一 하느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니 곳 무음이 썩곳을 사람의게 하시도다
- 二 오직 나는 거의 실족하고 내 발이 미끄러워 너머질번응였도다
- 三 내가 악인의 흉악함을 보고 교만흔자를 분히 뉘이였도다
- 四 너희가 죽을 때라도 곤고함이 얽고 그 힘이 긴장응도다
- 五 타인파 못치 고난을 받지아니응고 타인파 못치 죄양을 받지아니응도다
- 六 그런즉 교만함으로 목에 장식을 하고 강포함을 옷 내듯응였도다
- 七 살진 거스로 그 눈이 소사나왔스니 엇은 거시 생각응는 것보다 지나도다
- 八 너희가 희롱응고 악으로써 해응는 말을 응며 불흔혜응고 말응는도다
- 九 그 엇은 하늘에 두고 찢는 새에 두루 드니도다
- 十 그럼으로 그 빙성이 이리로 도라와서 그두흔 물을 마시리도다

- 十一 너희가 날으니 하느님이 엇지 알니오 응며 지극히 불흔진자가 지식이 엇스리오 응도다
- 十二 불지어다 이 사람들이 악인이오 늘 평안응며 그 죄물이 날노더응도다
- 十三 오직 나는 헛되히 무음을 썩곳케 응고 헛되히 손을 써서 무죄함을 보였도다
- 十四 내가 종일 괴로움을 받고 미양 재벌에 징계함을 보았도다
- 十五 내가 만일 뜻에 날으니기를 내가 이 말노 사람의게 고응리라 응였스면 주의 뜻 아들의게 재출을 행응였스리도다
- 十六 내가 이 리치를 알고저응야 생각응니 내 목전에 심히 어려움이 되도다
- 十七 다투 내가 하느님의 성소에 드러가서 그 못참이 엇더흔 거슬 비로소 썩드랴도다
- 十八 주쳐서 참 너희를 미끄러질 곳에 두샤 침륜에 빠지게 응시니이다
- 十九 아하 너희가 경각에 해재응야 놀나고 불남으로 아조멸망이 되였니이다
- 二十 삼썩고 썩것 응호니 주쳐서 썩샤 그 형상을 가브야히 보시리도다
- 二十一 대개 내 무음에 근심을 품었스니 내 창곳 속을 썩르느것 응호니이다
- 二十二 내가 우쭐응야 아는 거시 엽스니 주의 압해 증행 응호니이다

三 오직 내가 흠상 주와 흠쳐오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북드셨느이다
 四 주께서 주의 표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후에 나를 영광으로
 五 영접하시겠느이다
 六 주 외에 하늘에 누가 내게 잇스리오 사해서 나의 깃버출자는 주밖에
 七 열숨느이다
 八 내 몸과 내 마음이 쇠하니 오직 하나님은 내 몸의 반석이 되시며
 九 영원히 산업이로소이다
 十 대개 주를 멸시하는자는 망하니 무릇 음란을러 가는 것 또한
 十一 주를 떠날자는 주께서 멸하셨느이다
 十二 내가 하나님께 갖가히오니 거시 내게 아름다오니 내가 주 여호와로
 十三 피란처를 삼고 주의 모든 행하심을 전파하니이다

삼

하산의 표훈은
지략

一 하나님이여 엇지총야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며 엇지총야 주의 처시는
 二 양을 향총야 노총심이 멸멸하시릿가
 三 주여 넷적 보러 갈주고 사신 죄를 기억하옵소서 이는 구속총야 영을

삼으신 백성이오니 또 거하신 시온산을 기억하옵소서
 三 영원히 문혀진 곳으로 주께서 발을 드러림하옵소서 이는 원수가 성소에서
 四 모든 악을 행함으로소이다
 五 주를 떠러총는자가 주의 회중에서 원화하고 그 귀를을 썩자 뜻을
 六 삼았느이다
 七 너희 모양은 독기 든 사람이 수풀 나무를 버히라함 듯으니
 八 이제 너희가 독기와 페로 성소에 아로약인 것까지 쳐부스느도다
 九 내가 주의 성소에 불살오아 주의 일홈 제신 곳을 더러이고 더러지
 十 문혀드렸도다
 十一 너희가 심중에 넣은기를 우리가 너희를 아조 멸총자 하고 이 사에
 十二 잇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은 불노 살오았도다
 十三 이제 우리에게 페프는 포적을 볼수 업고 또 선지자가 다시 업스니
 十四 우리 중에 얼마 동안이나 이러케 될번지 아느자가 업도다
 十五 하나님이여 더러이 얼마 동안이나 웨방으며 원수가 주의 일홈을
 十六 비방총기를 영원히 총리잇가
 十七 주께서 엇지총야 손 곳 오른손을 거두시릿가 주는 손을 품에서

제사 너희를 멸공하시

- 十二 대덕 하느님은 제로 브러 나의 왕이 되사 사해 구원공심을 베푸시도다
- 十三 능력을 베푸사 바다를 진호시며 물에서 룡의 머리를 썩드리셨느이다
- 十四 주께서 아어의 머리를 썩드리사 광야에 거할 백성의게 주어 너희가 머게 흥셨도다
- 十五 주께서 바회를 썩이어 심과 시너를 버시고 같이 흐르느 하슈를 들니셨느이다
- 十六 낮도 주께 속공고 밤도 주께 속공했스니 일월성신을 주께서 모초셨느이다
- 十七 주께서 외사의 모든 디명을 분별하시고 여들과 겨을은 다 멸공셨느이다
- 十八 여호와여 원슈가 비방할 거슬 귀어공하시여 어리석은 백성이 주의 일홈을 훼방공했느이다
- 十九 주의 비방이의 성명을 주린 증성의게 주지마옵시고 주의 구원공 무리를 영원히 잊지마옵소서

- 二十 주의 언약을 도라보시옵소서 대개 사 함암할 곳에 강포원자의 집이 출만공도다
- 二十一 학디 밧은자로 밧그려움을 무릅쓰고 도라가게 마음시고 구공원자와 빈핍원자로 주의 일홈을 찬양공게 하시옵소서
- 二十二 하느님이여 나라사 베푸실 스건을 베푸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종일 슈를 훼방공을 귀어공시옵소서
- 二十三 주의 원슈의 소리를 잊지마옵소서 곳 슈를 치닌자의 원화음이 종상 우에 사모치느이다

三

하삼의 시니 형창을 작혀 원불패망
관포해 밧을 노래하

- 一 하느님이여 주의 일홈이 깃가오며 우리가 주께 사례공고 사례공음느니 사람이 주의 귀이힌 일롬을 전파공느이다
- 二 길으사디 평원 귀야을 내가 당공면 의로써 관만공리도다
- 三 사와 거할 백성이 다 소멸공나 내가 사를 벗르느 기뻐음을 세웠도다(셀가)
- 四 내가 트랑공느자의게 빌으디 트랑치말나 흥며 아을 공느자의게 빌으디

쌀을 드지말지어다

- 五 네 쌀을 돌취 드지말며 굶餓 목으로 츳랑응지말나
- 六 대개 사람의 존영이 동으로 말미암지아니응고 셔으로 말미암지아니응며 남으로 말미암지아니응도다
- 七 오직 하느님은 지관장이시니 이를 츳초시고 더를 돌취시느도다
- 八 여호와 손에 잔이 잇스매 술이 피이고 그 지료가 츳투응니 여호와 셔셔이 잔으로 잔질응야 내매 그 썩기도 썩의 모든 악인이 반드시 썩아 먹으리도다
- 九 오직 내가 영원히 전파응고 야곱의 하느님께 찬양응리도다
- 十 내가 악인의 쌀을 다 버리고 의로운자의 쌀은 돌취 틀케 응리도다

美

하삼십의 시나 형장을 작히 지문고에 맞출 노래하

- 一 유다에서 하느님이 사람의 아느바 되시고 이스라엘에서 그 일홈이 크시도다
- 二 그 장막이 살렘에 잇고 그 거항시는 곳이 시온에 잇도다

- 三 거머서 활의 화전과 방패와 환도를 썩그시고 전정을 굶치케 응섯도다 (셀나)
- 四 주셔셔 영화롭고 아름다오시니 룻양응느자의 산보다 응응시도다
- 五 무음이 장응자는 룻양응을 넘고 잠을 잤스니 힘잇느자는 다 손을 돌취지못응도다
- 六 야곱의 하느님이여 주의 썩지저심을 인응야 병거와 말이 다 잠에 취응혔도다
- 七 주는 평외을자시니 노응실 때에 누가 응히 그 목전에 서리잇가
- 八 하늘노피려 판단을 사람으로 두께 응시니 사도 두려워응야 잠잠응혔도다
- 九 이때는 무릇 썩에 잇느 겸손을자를 구응시려응야 하느님께셔셔 니려나샤 판단응실 때로다 (셀나)
- 十 과연 사람의 노응이 장초 주를 찬송응고 그 남은 노 응은 주셔셔 금응시리이다
- 十一 링세할 거슬 여호와 니희 하느님께 감을지니 두루 스면에 잇느 사람이 다 레물을 가히 두려워을자셔 드릴지어다

六四四

七四四

卷

- 十一 주께서 방략의 기운을 싣으시리니 짜의 만왕의 두려움이 되시도다
- 하삼의 시니 영두권의 별을
짜라 령장을 삼취 홀 노래라
- 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느님께 불너 알외니 곳 하느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매 내게 귀를 기우리시리로다
- 二 내가 환난 당할 날에 주를 차조며 밤 스이에 내가 손을 들고 쉬지아 니하였스니 내 마음이 위로출을 받기를 슬혀하였도다
- 三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종즉 이뵈옵고 내가 생각하종즉 마음이 상하도다 (셀나)
- 四 주께서 내 눈을 금동사 홍상 세게 하시니 내가 피로움을 받아 능히 말하지 못하도다
- 五 내가 옛 날을 생각하니 곳 이전 히로다
- 六 내가 밤 스이에 한 노래를 기억하코 내가 마음에 생각하야 뜻에 궁구하였도다
- 七 주께서 영원히 브리시리잇가 티티로 은혜를 더하시아니하시릿가
- 八 그 인조홍심이 영원히 열습나잇가 그 허락홍심을 티티로 폐하시리잇가

- 九 하느님이 은혜 베푸심을 니지셨나잇가 노홍심으로 그 긍출을 막이셨 나잇가 (셀나)
- 十 내가 물음티 이 거시 나의 환난이나 지구히 불호신자의 권능 베푸신 때를 생각하리로다
- 十一 내가 여호와의 홍신바를 말하코 주의 옛 때에 귀이힐 일을 내가 기억하 리로다
- 十二 주의 지으신 거슬 다 무상하코 주의 홍신 거슬 생각하리로다
- 十三 하느님이여 주의 깊은 생소 안에 잇스오니 하느님과 못제 권이가 누가 잇스오리잇가
- 十四 주는 귀이힐 일을 청하신 하느님이시니 만민 중에 능력을 나타내셨나이다
- 十五 주께서 주의 팔복으로 그 허성을 구속하셨스니 곳 야곱과 요셉의 조손이로소이다 (셀나)
- 十六 하느님이여 바다 물이 주를 보았도소이다 바다 물이 주를 본즉 두려워하코 그 깊은 곳도 쏘인 진동하였나이다
- 十七 구름이 물을 쏘으며 궁창이 소리를 발하오니 주의 살이 번득였나이다

十八 회리 바람 중에 주의 우뢰 소리를 발동고 번개가 싸에 빛치니
 싸이 또 전동동고 운자였느이다
 十九 주의 길에 바다에 있고 주의 도로가 큰 물에 있스오니 주의 발 자취를
 아지못하엿느이다
 二十 주의 특성 인도홍시기를 무리 양과 뭇채 송사티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향섯느이다



하삼십의 교훈송고
시략

一 나의 특성이여 내 교훈을 듯고 귀를 기우려 내 입의 말을 드르라
 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프러 넷 말의 숨은 거슬 발동티르다
 三 우리가 듯고 아는 거시니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들은 거시르다
 四 우리가 그 조손에게 숨기지아니흥고 여호와와 찬송과 그 권능과 행흥신
 이적을 후세에 전흥티르다
 五 주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를범을 이스라엘에 명흥섯스니 우리
 열조의게 명흥샤 조손에게 전흥라 흥섯도다

六 후세에 못 그 나홀 조녀로 흥여곰 가히 알케 흥심이니 너희가 너러나
 조의 조녀에게 전흥케 흥티르다
 七 이는 너희로 한니님을 보라고 한니님이 행흥신 거슬 빛지아니흥고 그
 계명을 직혀
 八 제 열조의 듯고 비역할 시티와 조지아니케 흥라흥니 그 무음이 바르지
 못흥고 그 뜻이 한니님 압헤 출성치아니할 시티르다
 九 예브라임의 조손이 병귀와 활을 예비하엿더니 싸호느 날에 물니갓도다
 十 한니님이 언약을 직혀지아니흥고 한니님의 를범 행흥기를 슬혀흥도다
 十一 또 주의 행흥신 것과 그 보이신 귀이흔 거슬 니져버렸도다
 十二 그 크레 이상흔 일을 너희 열조 압헤 해줄싸 소안 틀에서 흥흥심이로다
 十三 바다를 넘호샤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흥시니 물을 언더 뭇채 시게
 흥섯도다
 十四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흥시고 밤에는 불 빛츠로 인도흥섯도다
 十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쪼기샤 길흔 못에서 마심과 뭇채 훌훌히 마시게
 흥섯도다

十六 시니가 반석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응사 물이 하슈 및치 흐르케 응섯도다
 十七 그러나 이 백성은 더욱 하느님께 죄를 얻었스니 광야에서 지구히
 十八 뉘흔신자를 비역응섯도다
 十九 또 하느님을 쳐서 말응티 하느님이 광야에서 능히 상을 베풀니오
 二十 불지어다 유가 반석을 쳐서 곳 물이 흘러 나가 넘치게 응섯거니와
 二十一 이제 능히 썩도 주며 그 백성을 위응야 고기를 예비응시베프나 응섯도다
 二十二 이럼으로 여호와께서 드르시고 노응사 야곱에게 불살오시고 이스라
 二十三 엘에게 분내섯도다
 二十四 이는 하느님을 믿지아니응이오 하느님의 구원응심을 의지치아니응
 二十五 이로다
 二十六 그러나 하느님이 우에 있는 동창을 명응시고 또 하늘 문을 여시도다
 二十七 마나를 비스리웃응사 더희로 만케 응섯스니 하늘의 양식으로 더희게
 二十八 주섯도다
 二十九 그 때 사람들이 권응 있는자의 썩을 먹었스니 양식을 주샤 죽응게

응섯도다

一 동풍으로 하늘에서 내려나케 응시고 조귀 권응으로 남풍을 잇신샤
 二 더희게 고기 느리시기를 티슬과 및치 응시고 느는 새로 바다 모래와
 三 및치 느리샤
 四 더희 진 가운데 썩러지게 응섯스니 그 거을 곳에 틀렸도다
 五 먹고 비불냈스니 하느님이 더희 욕심을 일우케 응섯도다
 六 더희가 그 욕심을 못치아니응니 그 먹은 거시 오히려 그 입에 잇을 때에
 七 하느님의 진노응심이 그 무리의게 림응샤 그중 권장응자를 죽이시고
 八 이스라엘의 장명을 쳐 앎흐러르섯도다
 九 비록그러나 더희가 오히려 범죄응고 그 귀이혼일도 믿지아니응섯도다
 十 그럼으로 헛되히 더희 말을 지나케 응시고 두려움으로 혀를 지나케
 十一 응섯도다
 十二 더희를 죽이실 때에 더희가 쥬제 구응고 이에 도리켜 온절히 하느님을
 十三 차졌도다
 十四 하느님이 조귀의 반석이신 거을 귀응응고 지구히 뉘흔신 하느님은

三 主의 구속을 신 유 죄심을 기억하였도다
 三 그러나 너희가 오직러 그 입으로 아첨하고 그 혀로 주를 향하여 거짓
 三 말을 하였도다
 三 대개 그 마음이 주께 향하기를 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향을 성실히
 三 직하지 아니하였도다
 三 오직 주는 공회하시느 마음이 그대하시니 죄를 사하여 진멸치 아니하시고
 三 또 여러번 그 진노함을 도리키시고 그 분음을 다 발음지 아니하셨도다
 三 너희는 유례없이 너 가고 도라오지 아니하느 바람과 조흔줄로 생각하
 三 셨도다
 四 너희가 광야에서 주를 비역함이 몇번이며 갓친 사에서 노함시게 함이
 四 몇번이요
 四 너희가 도리켜 다시 하나님의 시험을 아 이스라엘의 오직 거룩하신자로
 四 경노케 하였도다
 四 너희가 주의 손으로 행하신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또 티끌의게서
 四 구속을 신 날도 기억지 아니하였도다

四 곳 그 여러 짐을 해골에 베프시고 그 이적을 소안들에서 베프셨도다
 四 그 강을 범하여 피가 되게 하시고 그 너도 그러케 하여 마시지 못하게
 四 하셨도다
 四 파리새로 백성 가운데 드러가 물게 하시고 또 키고리로 해충게 하셨도다
 四 그 토산을 그는 버레의게 붓치고 그 슈고할 거슬 메섹이의게 붓쳤도다
 四 우박으로 그 포도 나무를 죽게 하고 온 우박으로 그 생나무를 죽게
 四 하셨도다
 四 그 룯축도 우박에 붓치고 그 양 새를 번거 불에 붓쳤도다
 四 노함심의 맹렬할 거슬 그 우에 나리우시니 진노함과 함음과
 四 근심하게 하시시오 또 벌음은 스자의 무리로다
 五 노를 베프는 글을 예비하시 그 영혼이 죽음을 명치 못하게 하시고 그
 五 성명으로 진멸케 붓치셨도다
 五 또 해골에 있는 모든 맛 아들을 치셨스니 곳 할의 장막에 있는 처음
 五 나흔자도다
 五 이에 그 백성을 양과 조쳐 이르러 너사 광야에서 인도하기를 양 새와

五三 또 치 응섯도다
 五三 편안히 인도응야 두려움이 없게 응시고 오직 너희 원슈를 바로다
 五四 덧흐섯도다
 五四 잇쓰샤 그 성소에 나르케 응시니 곳 그 올흔 손으로 갑 주고 사신이
 五五 산이로다
 五五 이에 별국을 너희 압헤셔 쫓차내시고 졸노 즐람응야 엇을 귀업을
 五六 논호아 주시니 이스라엘 지파들노 그 장막에 거응케 응섯도다
 五六 니러나 너희가 지극히 높흐신 하나님을 시험응고 뵈역응며 그 법도를
 五七 직히지아니 응섯도다
 五七 반역응야 간사응케 항홀이 그 별조와 다름이 앎스니 변응기를 할
 五八 지우듯응섯도다
 五八 그 산당들노 하나님을 진노케 응며 그 아로쟝인 우상으로 쥬를
 五九 노여워응케 응섯도다
 五九 하나님 이 드르시고 진노응샤 심히 이스라엘을 뵈워응샤
 六〇 또 실노의 장막을 찢나시니 이 장막은 곳 인간에 세우신 거시로다

六一 또 혼 즈기의 능력 된자를 잡히케 응시고 그 영광을 원슈의 손에
 六一 붓치섯도다
 六二 그 뵈성을 칼에 붓치시고 그 귀업이 된 뵈성을 항응야 진노응섯도다
 六三 너희 장명을 불 살오니 처녀의게는 혼인 노래가 없도다
 六四 그 제스장이 한도에 앎드지나 그 파부가 울지아니 응섯도다
 六五 폐에 쥬쳐셔 자던자의 썸파 죽호시고 장스가 술을 인응야 뵈히 소티
 六五 지름 죽호시도다
 六六 그 원슈를 쳐 물니쳐샤 같이 욱되케 응섯도다
 六七 또 옥셈의 장막을 슬허응시고 에비라임의 지파를 찢시지아니 응시며
 六八 이에 유다 지파를 찢섯스니 그 스람응신 시온 산이로다
 六九 쥬쳐셔 높흔 언더파 죽치 그 성소를 지으섯스니 영원히 세우신 짜와
 六九 죽치 응섯도다
 七十 그 종 다윗을 찢샤 양의 우리에서 잇쓰러 내섯도다
 七一 셋 머이노 암양 직히노 일을 폐응케 응고 쥬의 뵈성 야곱 곳 그
 七一 귀업 된 이스라엘을 기르케 응섯스니

卷

七十一 더가 정직한 마음으로 기리고 그 손의 공표함으로 인도하였도다

하
시
라

一 하나님이며 이방 사람이 주의 귀엿 가운데로 드러와서 주의 생명을
더럽게 하였스니 예루살렘을 허러 불무덤이 되게 하였도다

二 더희가 주의 종의 시체를 공중에 재의게 부쳐 머게 하고 주께
경건한자의 육체를 주의 증칭의게 부쳤도다

三 예루살렘 스면에 되 흘니기를 불과 죽치 하였스니 또한 장수한
사람이 었도다

四 우리가 우리 이웃의게 훼방더리가 되고 우리를 애운자의게 희롱과
비우음이 되도다

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니르리잇가 주의 노상심이 영원히 맞치시리잇가
주의 열루움심이 선거운 불 죽치 하지갓는잇가

六 오직 주의 노상심을 주를 아지아니호 이방의게 쫓으시고 주의 일홈을
부르지아니호는 열루움에 쫓으시옵소서

七 대개 더희가 야곰을 삼키고 그 거흔 곳을 다 문히드렸도다

八 우리 열루움의 죄를 귀여하야 우리의게 갑밧지마옵시고 주의 긍휼움심이
우리를 접디케 하옵소서 대개 우리가 심히 천송게 되였는이다

九 우리를 구원하시느 하나님이며 주의 일홈의 영광을 인하야 우리를
도으시며 주의 일홈을 인하야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써서 버리시
옵소서

十 엇지하야 이방 사람이 말하기를 더희 하나님이 어디 잇느냐 응게
하느잇가 주의 종의 되 흘닌 거를 갑흐심을 우리 목전에 이방 사람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十一 잠원자의 탄식이 주알해 니르게 하시며 주의 만흐신 능력대로 죽음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전하시옵소서

十二 주여 우리 이웃의게 주를 훼방하느 훼방으로 첼비나 그 품에
갑흐시옵소서

十三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 하나님의 치시는 양이니 영원히
하나님을 갑샤하고 또 하나님의 찬송을 티티로 전파하갓는이다

수

하삼십의 증거는 너이니 열방을 작혀
활활화 쿠포에 맞출 노래라

이스라엘의 목자 곳 요셈 잇신시기를 양의 떼와 좃치 흥시느니라 귀를
기우리쇼셔 게를 스이에 거흥시느니라 빛출 빛최시옵쇼셔

에브라임과 벤야민과 므낫세 합쳐서 능력을 발흥샤 와서 우리를
구원옵쇼셔

하느님이여 우리로 도리키게 흥시며 주의 열방들 빛출 우리의게 빛최쇼셔
그리흥면 우리가 구원을 엇으리이다

만유의 하느님 여호와여 주께서 진노흥샤 주의 백성의 괴도 막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흥시리잇가

주께서 눈물노써 음식을 삼아 먹이시고 온 그릇에 그릇한 부물을
마시게 흥시켰도다

주께서 우리 이웃의게 우리로 시비거리가 되게 흥시켰스니 우리 원수가
서로 우리를 비웃느도다

만유의 하느님이여 우리로 도리키게 흥시며 주의 열방들 빛출 우리의게

빛최쇼셔 그리흥면 우리가 구원을 엇으리이다

주께서 할포도 나무를 애굽에서 옮기샤 열방 사름을 쫓차내고 이
나무를 심으셨도다

주께서 이를 위흥샤 싸를 귀경흥시켰스니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박고
이 싸에 무성흥였도다

산애 그 그들이 두루 열렸스니 그 가지가 하느님의 백향 나무와 좃도다

그 가지가 바다에 나르고 또 년출이 하슈까지 밋쳤도다

엇지흥야 그 올라리를 활어 브리샤 길에 지나느자로 싸게 흥시느잇가

산 도야지가 수물에서 나와서 상해흥고 들 증성들이 머느이다

만유의 하느님이여 구흥노니 도리키쇼셔 하늘노브러 끌어 보옵시고
이 포도 나무를 권고옵쇼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나무요 조귀를 위흥야 기르신 가지로 소이다

불 못했스며 작별흥였스니 주의 편척을 인흥야 망흥노이다

원전대 주의 우편에 있는 사름을 보호흥시키고 주께서 조귀를 위흥야
기르신 인조를 못드쇼셔

十八 이 모든 것이 흥시면 우리가 주를 썩나 물너가지아니흥리니 우리로 살게
 흥을쇼셔 그리흥면 우리가 주의 일흔을 부르리이다
 十九 만유의 하느님 여호와여 우리로 도리키게 흥시며 주의 일흔을 벗출
 우리의게 빛출쇼셔 그리흥면 우리가 구원을 엿이리이다

찬

하삼의 시니 형상을 삼형
 가르하피에 맞출 노래라

一 우리의 능력이신 하느님께 높히 부르고 즐거움으로 야곱의 하느님께
 부를지어다
 二 노래를 부르고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거문고와 비파를 틀지어다
 三 각을 월삭에 불고 또 월망 간 절일에 불지어다
 四 이 거슨 이스라엘의 틀레니 야곱의 하느님께서 명하신 규례로다
 五 이는 주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요셉의 종속 중에서 세우신 법도니
 거피서 내가 아지못할 말을 드렸도다
 六 돌은 사티 내가 백성의 악지에서 잠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쥬리를
 뚝케 흥였노라

七 고난 중에서 네가 내게 알외며 내가 너를 건져 내고 백성이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낙하며 너를 미리바의 물에서 시험흥였도다 (셀나)
 八 내 백성이여 드를지어다 내가 내게 증거흥리라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뜻고 좃차스면 도켓도다
 九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잇게 말고 또 너희가 이방 신의게 절흥지말지어다
 十 나는 여호와 너희 하느님이니 너희를 거느려 애굽 사에서 나오게
 흥차라 너는 네 영을 버리라 내가 드르히 너희 주리로다
 十一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뜻지아니흥고 이스라엘이 내게 슬복지
 아니흥였도다
 十二 그러므로 내가 그 무음의 강박음을 좃차 조귀 뜻대로 흥흥게 브러두엇노라
 十三 내 백성이 만일 나를 드르며 이스라엘이 만일 내 길에 흥흥을 진대
 十四 내가 속히 그 원슈로 항복케 흥고 내 손을 틀어 그 티력을 치리로다
 十五 여호와를 흥흥느자는 항복흥느데 흥려니와 재신 백성의 변리는 영원히
 싹히지지아니흥리로다
 十六 하느님이 아름다운 밀노 기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노 비부르케

홍시리토다

하삼십의
시라함의

홍

- 一 하느님께서 쓰기의 죄중에 서사 모든 선 중에서 판단홍시도다
- 二 너희는 불의로 판단홍야 악인의 낮 쫓기를 어느 때까지 홍리오 (셀나)
- 三 악한자와 외로운 죄자를 판단홍고 끈고한자와 빈곤한자의게 공의를 베풀며
- 四 악한자와 중궤한자를 구원홍야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어다
- 五 너희는 무지홍고 또한 무식홍야 오직 어두움에 리왕홍니 세상의 원더가 진동홍도다
- 六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신이 되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자의 죄적이 된다 홍였도다
- 七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범일과 죽치 죽으리니 군왕 중의 홍나이 앎드러짐과 죽치 앎드러지리토다
- 八 하느님이여 내려나 싸를 심판홍쇼서 대개 주져서 만국을 기염으로

엇이시리토다

하삼십의 시
노래함의

홍

- 一 하느님이여 조금저마옵시며 전능홍신자여 영을 봉홍야 고요히 마시옵쇼서
- 二 대개 모시옵쇼서 하느님의 원슈가 험화홍고 주를 흥홍는자가 머리를 들었도다
- 三 주의 뱀성을 치러홍야 궤계를 횡홍고 주의 풀은자를 치러홍야 서로 의론홍도다
- 四 너희가 벌우기를 와서 너희 나라를 멸홍야 이스라엘의 일홍을 다시 괴여지못홍게 홍자 홍도다
- 五 너희가 일심으로 서로 의론홍야 하느님 치기를 언약홍니
- 六 곳 헤돔과 이스라엘의 장막이며 모압과 함가의 족속이오
- 七 궤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무로에 거할 뱀성이로다
- 八 아수르도 또한 그 무리와 합홍야 다 룯의 드손을 도았도다 (셀나)

- 九 주께서 그 무리의게 행동시기를 미디안에 행동심 곳에 행시며 시스라와 야민의게 기시온 시비에서 행동심 곳에 행시옵쇼셔
- 十 너희가 헨도르에서 패항야 사우에 거름이 되엿도다
- 十一 주께서 너희의 귀인으로 오렘과 스엠펜 곳에 행시고 너희 군왕으로 제바와 살문나와 곳에 행시옵쇼셔
- 十二 너희가 별을 기를 우리가 하느님의 거항신 곳에 응거항야 그염이 되게 행자 행도다
- 十三 내 하느님이여 너희로 회리바람에 몬지와 곳에 행시고 바람 압해 늘리는 짐불과 곳에 행시옵쇼셔
- 十四 수풀에 붓는 불과 곳에 행시며 산에 붓는 불뿔과 곳에 행시옵쇼셔
- 十五 이 곳에 행시며 주께서 사오나온 바람으로 쫓쳐시고 주의 광풍으로 투럼게 행시옵쇼셔
- 十六 주께서 그 낮해 붓그러움이 그듯행게 행시옵쇼셔 여호와여 그리행시면 너희가 주의 일흥을 구항리이다
- 十七 너희로 영원히 붓그러고 락담행며 또 슈치를 당항고 패망행샤

十八 여호와라 일흥행신 주만 원 사에서 지극히 노은신자신줄노 알게 행시옵쇼셔

註

과파의 주송의 시나 령장을 작취

가트 악귀에 맞춘 노래라

- 一 만유의 주 여호와여 그 거항신 곳이 아름달도 소이다
- 二 여호와와 의민을 스모행고 보함으로 내 령혼이 쇠약행으니 내 무음과 육체가 살아 제신 하느님께 부르지지노이다
- 三 참재도 짐을 엇고 제비도 조리를 위항야 깃드림을 엇어 그 삭기를 투엇스니 곳 만유의 여호와 내 왕 내 하느님의 만이노이다
- 四 무릇 주의 집에 거항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행샤 주께 찬송행리이다 (셀나)
- 五 주를 힐립느자의게 복이 있느니 그 힘이 주께 있스며 시온에 가는 길이 그 무음에 있도다
- 六 이 사람은 권물 늘리는 골짜이로 행항되 심 물이 나는 곳이 되게 행고 또한 보비가 은탁으로 내워지도다

七 또 힘을 었고 더욱 힘을 었어 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해 나라나리도다
八 만유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죄노를 드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리쇼셔 (셀나)

九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이여 보시옵쇼셔 주의 기름 부으신자의 보름
슬피시옵쇼셔

十 대개 주의 면에 흰 날이 다른 곳에 천 날보다 아름다오니 내가
하나님의 면 문을 저히느 거시 악인의 장막에 거함은 그보다 낫도다

十一 여호와 하나님이여 천의 방패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사
정직케 칭송느자의게 아모 모흔 거시라도 앓기지아니함시도다

十二 만유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함느자는 복이 있느자니이다

三

고라의 주손의 지니 열광을
삼히 올 노래라

一 여호와여 은혜를 주의 사에 베포샤 야곱의 사록잡힌 거슬 도라오게
함섯나이다

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함시고 그 모든 죄를 덮으섯나이다 (셀나)

三 주의 모든 노함심을 거두시고 주의 진노의 횡혈은 거슬 도리키섯
나이다

四 우리를 구원함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리키게 응시며 우리에게 향음은
진노함심을 두치시옵쇼셔

五 영원히 우리의게 진노함시려응시며 분음심을 티리로 나리게 응시느잇가

六 주를 인종야 주의 백성을 깃보게 응시라고 우리를 다시 살너지아니함
시겠느잇가

七 여호와여 주의 긍휼히 베키심을 우리의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음성을
우리의게 주시옵쇼셔

八 하나님 여호와와 의 흥될 말씀은 내가 드르리니 대개 그 백성과 평민은
자의게 화평을 말씀을 흥시리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시 망녕된 티
도라가지말지니라

九 그 구원이 과연 부러우음느자의게 깃가오니 영광이 우리 사에 거음게
흥시리도다

十 긍휼과 진리가 서로 사피고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임맛초앗도다

- 十一 진리는 싸이로브리 소사나고 공의는 하늘노브리 느리다 보았도다
- 十一 여호와께서 드온 거슬 주시리니 우리 싸는 그 풍성함을 내리리다
- 十三 공의가 주압해 행흥야 주의 행흥시는 자취를 밟는 길이 되게 흥리리다

※

다윗의
귀도락

- 一 여호와여 귀를 기우리샤 내게 응답응시옵소서 대개 내가 끈고응고
강됨중니이다
- 二 나의 행흥을 보전응시옵소서 대개 나는 경건한자니이다 나의 하느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응시옵소서
- 三 주여 나를 긍휼히 녀이시옵소서 대개 내가 종일 주께 알외옵니이다
- 四 주여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응시소서 대개 내가 내 마음을 틀어
주를 향응니이다
- 五 주여 선종샤 용서응시기를 잘응시고 주께 알외는자의게 인듯응심을
후히 베프시니이다
- 六 여호와여 귀를 기우리 나의 귀도를 드르시고 나의 소구응는 소리를

드르시옵소서

- 七 내가 환난을 당을 날에 주께 불너 알외리니 대개 주께서 내게 응답응
시리이다
- 八 주여 모든 신 중에 주와 뜻을자가 업고 주의 지으신 일과 뜻을이
업니이다
- 九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만유 행성이 와서 주압해 경배응고 주의
일흥을 영화롭게 흥리이다
- 十 대개 주는 크시고 또 이적을 행응시니 출노 흥나이신 하느님이로소이다
- 十一 여호와여 나를 주의 길노 지시응시옵소서 내가 진리를 행응리니 나로
흥어곰 일심으로 주의 일흥을 두려워응게 흥시옵소서
- 十二 주 나의 하느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사레응고 내가 주의 일흥을
영원도록 영화롭게 흥리이다
- 十三 대개 주께서 내게 인듯응심이 크시고 또 내 행흥을 지극히 기쁘
은부에서 기뻐지셨니이다
- 十四 하느님이여 표만흥자가 나라나 나를 치며 강포흥자의 무리가 내

十五 령훈을 차지니 그 눈 함께 주를 무지아니 하였나이다
 주여 오직 주는 조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 흥성 노후생을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공심이 풍성하시니이다
 十六 주는 내게 도리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능력을 주의 종이께
 주시고 주의 제사장들의 뜻을 구원하시옵소서
 十七 은혜님을 증거를 보이사 나를 찬양노자로 보고 빛그림에 응옵소서
 대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위육하셨나이다

송

고라의 조순의 시니 노래라

- 一 더 시온 성리가 거룩한 산에 있도다
- 二 여호와께서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기를 야곱의 모든 거하는 곳보다 더하시도다
- 三 하나님의 성이여 영광스러운 말노 너를 칭찬하노도다 (셀나)
- 四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망중야 나를 아는 자 가운데 있다 응리라 블레셋과 투로와 구스여 보라 이 사람이 거대서 낫도다

五 시온을 의문컨대 열으기를 이 사람과 또 사람이 그 성에서 낫다
 할지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친히 그 성을 세우시리도다
 六 여호와께서 만국을 귀를 감실 때에 말씀하시되 아모아모가 그 성에서
 낫다 하시리도다 (셀나)
 七 노래하는 자와 풍류를 치는 자가 열으기를 내 목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
 응리도다

송

고라의 시오 령장을 작한 줄 노래니 곡포는 병의 피로움이요
고후는 시니 예스라 죽속 해만이 지은 거사라

- 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야로 주 함께 부르짖지
나이다
- 二 나의 귀도를 주의 함께 스뭇치게 하시며 주의 귀를 기우려 나의
알외는 말씀을 드르시옵소서
- 三 대개 나의 령훈에 고난이 조름중고 나의 생명이 음부에 갓가히
가노도다
- 四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응령이여 드러가노자와 다름이 없고 노음이

四 영문자와 죽도다
 五 죽은자 중에 보림이 되고 살륙을 당할자가 무덤에 누운 죽으니 쥬쳐서
 六 다시 괴어지아니옵시며 쥬의 손에서 살허진자와 죽도소이다
 七 쥬쳐서 나를 길흔 응령이여 두셨스니 어두운 곳과 길흔 곳이로다
 八 쥬의 노홍심의 중히 내게 밋겼스니 쥬의 모든 물결노 나를 괴롭게
 九 하였스니이다
 十 나의 아는 사람으로 내게 멀니 썩나게 흥시고 내가 너희게 무음이
 十一 되게 하였스니 내가 가치여 다시 나가지못하겠스니이다
 十二 괴로움을 밋음으로 내 눈이 쇠홍스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날마다 쥬쳐
 十三 알외고 내가 두 손을 펴 쥬쳐 향송했스니이다
 十四 쥬쳐서 괴이한 일을 죽은자의게 보이시겠스잇가 죽은자가 내려나
 十五 쥬쳐 샤테흥리잇가 (셀나)
 十六 쥬의 인조홍심을 무덤 속에 전파흥리잇가 쥬의 성실홍심을 패망할
 十七 중에 전파흥리잇가
 十八 어두운 되셔 쥬의 괴이한 거슬 알니잇가 니쳐브리는 곳에서 쥬의

一 공의를 알니잇가
 二 여호와여 내가 쥬쳐 부르지졌스니 아침에 내 기도가 쥬압헤 밋치리이다
 三 여호와여 엿지홍야 내 형혼을 보림시며 엿지홍야 낮출 내게 그리우시
 四 니잇가
 五 내가 짊어셔브러 괴로움을 밋아 죽게 되였고 내가 쥬쳐 노발음을 밋을
 六 때에 소망이 살허졌스니이다
 七 쥬의 심히 진노홍심이 내게 림홍섯고 쥬의 불나게 홍심이 나를 망케
 八 하였스니이다
 九 종일 물 곳치 나를 무루며 또 일제히 나를 애웠도다
 十 나를 스랑홍문자와 나의 벗을 쥬쳐서 멀니 내게 썩나게 흥시고
 十一 내 아문자를 어두움에 두셨스니이다
 十二 效송송고 시니 에스라 족속
 十三 何만이 지은 거지라
 十四 내가 여호와와의 인조홍심을 영원히 노래홍고 내 임의로 쥬의 성실홍심을
 十五 티티로 고홍리이다



二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인드홍심을 영원히 세우시고 주의 진실홍
 심을 하늘에서 편고케 하시리라 하였노이다

三 내가 나의 썩자로 더브러 언약을 세우고 내가 내종 다윗에게 명세한
 길은 이다

四 내가 영원히 너의 조손을 편고케 하고 또 네 위를 티티로 세우리라
 (셀나)

五 여호와여 하늘이 주의 이적을 사해하고 주의 성실홍심을 거룩한자의
 회중에서 사해하시라

六 대개 궁창에 있는이 중에 누가 능히 여호와와 비교하며 능히 있는자
 중에 누가 여호와와 맞으리오

七 그 거룩한자의 회중에서 심히 위엄 있는 하나님이니 무릇 두려
 있는자보다 두려워할자시라

八 만유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가 전능함이 주와 맞으리오 주의 성실홍심이
 주를 예쳤노이다

九 주께서 바다의 홍용을 다스리시니 그 파도가 너러남즉 잔잔케

홍시노이다

十 주께서 라합을 문히느리샤 살육을 당한자와 못케 하시고 능하신 팔노
 주의 원수를 좃취 브리셨노이다

十一 하늘이 주의 거시오 산도 주의 거시니 세계와 그 만물이 주께서
 세우신 거지로소이다

十二 남부를 주께서 지으셨스니 다보르와 하몬이 주의 임음을 인용야
 즐거히 부르노이다

十三 주께서 능히 있는 팔이 있스오니 주의 손이 힘이 있고 주의 오른손이
 놀으시노이다

十四 공의와 판단이 주의 보좌의 터이요 인드와 진실홍이 주 앉해 행하시라

十五 즐거운 소식을 아닌 백성이 부 있는자니 여호와여 너희는 주의 영광
 빛해 행하도소이다

十六 너희가 주의 임음을 인용야 종일 깃버하며 주의 의를 인용야 보람하노이다

十七 대개 주께서 너희의 행의 영광이 되시니 또 주께서 은혜를 베푸샤
 우리 생물을 트시라이다

二八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송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
 속송도다
 二九 당시에 주께서 무시로 주의 성도의게 빛사하시니 내가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도움을 베풀고 백성 가운데서 선자를 내가 높히 드렸도다
 三〇 내가 내 종 다윗을 차졌스며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三一 내 손이 그를 흥상 부흥송고 내 팔이 그를 권고케 응리도다
 三二 원수가 그를 해롭게 하지 못송고 아함자가 궤를케 하지 못송리도다
 三三 그 압헤서 내가 그 원수를 쳐 멸송고 흥상노자를 치리도다
 三四 오직 나의 성실함과 인조함이 흥상송고 그 션이 내 일함을 인양야
 돌하치리도다
 三五 내가 그 손을 바다에 세우고 그 오른 손을 하수에 세우리도다
 三六 그가 내게 알외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구원하시니 반석이라 응리도다
 三七 오직 내가 그를 세워 나의 장조를 삼아 세상의 열왕 중에 제일 높게
 응리도다

三八 그를 위양야 나의 인조함을 영원히 베풀지니 너와 언약한 거시 변치
 아니응리도다
 三九 내가 그 조손으로 영원히 잇게 송고 그 위가 흥상 잇기를 하늘의 날과
 못케 응리도다
 四〇 그 조식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대로 행치아니송며
 四一 내 불례를 범송며 내 계명을 저히지아니송면
 四二 내가 막대기로 그 범법함을 치며 채찍으로 그 죄악을 썩지치리도다
 四三 그러나 내가 나의 인조함을 너에게 아조 썩나지아니송게 송고 나의
 성실함을 폐치아니응리도다
 四四 내가 나의 언약을 어기지아니송고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을 변치아니
 응리도다
 四五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망세하였노니 내가 다윗에게 거짓 말을 송지
 아니응리도다
 四六 그 조손이 영원히 잇고 그 위가 흥상 희와 못치 내 압헤 잇스리도다
 四七 틀과 못치 영원히 설 거시니 틀은 궁창에서 확실히 증거함노자로다

(셀나)

- 三六 그러나 주께서 슬허 보리샤 주의 기름 부으신자를 노여워하셨느이다
- 三九 주께서 주의 종의 언약을 폐하시고 그 면류관을 사에 던져 욕되게 하셨느이다
- 四一 주께서 주의 모든 올라리를 허르시고 주의 산성을 문허르리셨느이다
- 四二 길에 지나는자가 다 너를 해송고 너가 또 리웃의게 욕을 당송느도다
- 四三 주께서 주의 티끌의 울흔 손을 드시고 주의 모든 원슈로 깃브게 하셨느이다
- 四四 주께서 주의 환도날을 문송게 송시고 너로 싸흔에 서지못송게 송셨느이다
- 四五 주께서 주의 영광을 곳치게 송시고 또 주의 위를 사에 기우러르리 셧느이다
- 四六 주께서 주의 쇼년의 날을 썰게 송시고 너를 붓그러움으로 밍흐셨느이다 (셀나)
- 四七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잇가 주께서 영원히 숨으시리잇가 주의 노송심이 썩거기가 불 곳치게 송시기를 어느 때까지 니르시리잇가

- 四八 주는 나의 살 때가 심히 썩른 거슬 귀염송시옵소셔 주께서 만민을 지으신 거시 심히 헛되도소이다
- 四九 누가 살아 잇서 죽음을 보지아니송며 그 평호을 음부의 권세에 버셔나케 송리오 (셀나)
- 五〇 주여 전에 인즈송심이 어디 잇스며 성실함으로 다윗의게 밍세 송신 거시 어디 잇느잇가
- 五一 주여 종들이 휘방 밧은 거슬 귀염송시옵소셔 만인의 휘방이 다 너 품에 잇느이다
- 五二 여호와여 주의 원슈가 휘방을 거신디 주의 기름 부으신자의 형편을 휘방을 거시도소이다
- 五三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을 거시도다 아멘 아멘

예수권

하나님의 사랑
모세의 기도함

- 一 주여 티티로 우리의 거할 곳이 되셨느이다
- 二 산이 나기 전과 주께서 사와 세계를 지으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하느님이로소이다
- 三 주께서 사름으로 티물에 도라가게 하시고 이에 글, 사와 인성들아 근본으로 도라가라 하시느이다
- 四 대개 주의 분에는 천년이 어제 날 지난과 같으며 밤에 한 명명과 같으며이다
- 五 주께서 칸물노 더희를 밀침과 같으며 더희들이 응로밤 잠자느 것 같으며 또 아침에 불이 자라느 것 같으며
- 六 아침에는 빛나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버히죽 무르느노다
- 七 우리가 주의 전노공심으로 쇼말하여지고 주의 분내심으로 놀나느이다
- 八 주께서 우리 허물을 뜻디 압헤 퍼노시고 우리 은밀한 죄악은 주의 열골 빛 가운데 퍼노셨느이다
- 九 우리 모든 날이다 주의 전노공시느 가운데 지나가오니 우리가 세월을 지내느 거시 니야기 할과 못치 속항도소이다

- 十 우리의 년슈가 칠십년이오 혹 강건할자는 팔십년에 나르나 오져 그 조람함이 슈고와 슬픔이니 대개 세월이 속히 가매 우리가 놀나감과 같으며이다
- 十一 주의 전노공시느 권능을 누가 알며 누가 응히 주를 평의호느 노를 좇차 주의 성내심을 알나잇가
- 十二 우리를 무르쳐 우리 년슈를 헤게 응사 지체로운 무음을 멧게 호되 주옵쇼셔
- 十三 여호와여 도라오시옵쇼셔 어느 때까지 이러하시리잇가 주의 종을 긍휼히 녀이옵쇼셔
- 十四 주는 아침에 우리를 주의 인조공심으로 죽항게 응옵쇼셔 그리호면 우리가 사느 날 동안에 기쁘고 즐거워호리노다
- 十五 주께서 우리를 끈고케 하시날 수호와 죄악을 멧나케 하시 될 수 할를 좇차 우리를 즐겁게 호옵쇼셔
- 十六 주의 지으신 거슬 모든 종의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 조신의게 밀항게 하시옵쇼셔

十七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거동설지니 주께서
우리 손으로 지은 거슬 우리에게 제우시며 곳 우리 손으로 지은 거슬
주께서 곳게 제우시옵소서

제 지구히 돌흔신자의 은밀한 곳에 거처는도자가 전능하신자의 그들
아래 거동리토다

二 내가 여호와를 말동야 너를 거스른 주께서 나의 피흘 곳과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흥리토다

三 대개 너를 몇 못근자의 그들에 버셔나게 하시고 들흔 병에서 건지시
리토다

四 쓰디 깃으로 너를 멸흔시며 내가 그 들기 아래 피동리니 그 진실능심이
방패와 같듯이 되도다

五 너는 밤에 놀다니 것과 나제 흐르니 살을 두려워하지아니흥리토다

六 어두운 가운데 행하느 질병과 뱀쥬에 행하느 패망을 두려워하지아니
흥리토다

七 비록 천일이 네 것해 엷드러지며 만일이 네 우편에 엷드러지되 그

저앙이 네게 갓가히 오지못흥리토다

八 오직 네 눈이 슬퍼 악인의 보응 받은 거슬 보리토다

九 여호와여 나의 피란 곳이로소이다 너는 지구히 돌흔신자로 나의 거울
곳을 삼았스니

十 그럼으로 저앙이 네게 밋치지못흥고 질병이 나의 장막에 갓가히
못흥리토다

十一 여호와께서 너를 위동야 그 스자를 명흥시리니 모든 행하느 길에
너를 호위흥시리토다

十二 그 스자가 손으로 너를 붓드러 발이 돌에 부딪치지안케 흥리토다

十三 내가 스즈와 두스를 밟고 또 짧은 스즈와 비암을 밟노 누르리토다

十四 더가 나를 사랑흥느고로 내가 더를 건져 돌흔 곳에 들 거스 내 일음을
알미토다

十五 더가 내게 알외면 내가 응낙흥고 근심을 할 때에 내가 울져 잇서
더를 건지고 영화롭게 흥리토다

十六 내가 장슈케 힘으로 더를 죽흥게 동야 나의 구원을 보이리토다



시구십의편
시구십의편 노래송고

- 一 여호와여 사레송고 거시 아름다오니 제국히 들으신자여 일흔을 찬양송고 거시 아름답도소이다
- 二 주의 인종홍심을 아침에 전파송고 주의 성실홍심을 저녁마다 전파송고 거시 아름답도소이다
- 三 열을 거문고와 비파로 노래송고 거문고로 감동송고 소리를 향리르다
- 四 여호와여 청송신 일노 나를 깃피게 흥섯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심을 인양야 내가 노히 부르리르다
- 五 여호와여 지으신 거시 심히 크오며 주의 성직홍심이 갓도소이다
- 六 증성파 죽은자는 아지못송고 우쥬온자는 이를 세도지못송고도다
- 七 악인이 틀 죽치 성장송고 모든 형악송고자가 흥왕송나 영원까지 멸망할 거시르다
- 八 여호와여 영원까지 불흔 곳에 계시느이다
- 九 여호와여 주의 원슈를 보시옵쇼셔 주의 원슈가 반드시 꺾망흥리니

형악송고자가 다 흥히지겠느이다

- 十 그러나 주께서 베풀을 드시기를 들소 베풀피 죽치 흥섯스니 내가 새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느이다
- 十一 내가 너 원슈의 보응 받느거술 눈으로 보았고 나라이 나를 치라송고 악독흥자의 보응 받음을 귀로 드렸도다
- 十二 오직 의로운자의 흥왕송고 거시 종관 나무와 죽고 자라느 거시 림바논의 백향 나무와 죽호리르다
- 十三 여호와여 면에 심은자가 우리 하나님의 썰에 왕성흥리르다
- 十四 들을 때에도 절실송고 진익이 흥성흥야 빛치 부르리르다
- 十五 이는 여호와여 공변되심을 뜻함이니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불의홍심이 열도다
- 一 여호와여 왕이시니 위엄으로 웃넘듯송고 능력으로 웃넘듯송야 썰을 썩섯스니 그런고로 세계가 편고히 서서 움직이지못송도다
- 二 주의 보좌가 네로브터 죽게 섰스며 주께서 영원보터 계시도다
- 三 여호와여 온 물이 그 소리를 발송고 온 물이 그 소리를 발송며 온



물이 그 파도를 너르키르도다

四 여호와께서 만흔 물 소리보다 더홍시며 바다의 쉼 있느 파도보다 지나시며 돌흔 곳에 계시서 능홍시도다

五 주의 도리가 심히 생실홍오니 여호와여 거룩홍심이 주의 잠에 맛당홍샤 영원까지 맛치리도다



여호와여 보슈홍시느 하느님이시니 보슈홍시느 하느님께서 빛줄 빛침 시옵쇼셔

二 새를 심판홍시느이여 니러나샤 표만흔 사람에게 그 밧을 감스로 감히시옵쇼셔

三 여호와여 악인이 얼마나 오래 개가를 부르며 얼마나 오래 개가를 부르리잇가

四 너희가 말을 좃아 내며 오만흔 말홍오니 아물 청홍느자가 다 스스로 즈랑홍느도다

五 여호와여 너희가 주의 백성을 무취리리며 주의 귀엳을 귀롬게 홍느이다

六 파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아비 엳느 즈식을 살해홍느도다

七 너희가 말홍기를 여호와가 슬피지못홍신다 홍며 아픍의 하느님이 도라보지못홍신다 홍도다

八 백성 중에 즐칭의 모음이 있느자여 너희가 쉼느리이다 우쥬홍자가 언제 지혜를 엿이리오

九 귀를 주시느자가 엿지 듯지아니홍시며 눈을 지으시느자가 엿지 보지지 아니홍시리오

十 쉼방을 썩지시느자가 엿지 청망치아니홍시리오 사람에게 지혜를 그르치사느자시도다

十一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을 아시느니 헛된것 썰이로다

十二 여호와여 정계홍시느 사람은 복이 있느자요 주의 클뵈이로 그르치시느자로소이다

十三 환난의 날을 버셔나 평안홍을 엿게 홍시되 악인을 위홍야 구렁이를 팔 떠까지 홍시리도다

十四 대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아니홍시며 그 귀엳을 떠나지아니 홍시리도다

十五 오직 심판은 공의대로 할지니 무음이 정정함자가 다 좃치리로다
 十六 누가 나를 위함야 니러나 악한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함야 니러서서 불의 행음노자를 치리오
 十七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셨더면 내 영혼이 속히 적막한 터 거함였스리로다
 十八 내가 말하기를 내가 살육한다 할 때에 여호와와 인접함심이 나를 북돋웠느이다
 十九 내 속에 근심이 많은 중에 주의 위도함심이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함느이다
 二十 법을 노써 잔재함을 도모함자의 악한 디위가 었지 주로 더브러 교제호리오
 二十一 너희가 모죄 의인의 생명을 치며 무죄한자를 명죄함야 피를 흘니느도다
 二十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높은 성이 되셨고 나의 함노함은 나의 피혈 반석이 되셨도다
 二十三 주께서 악인의 잔악한 세를 조귀 몸예 도라가게 함셨스니 악을 청함을

때에 주께서 멸음실 거시오 곳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멸음시리로다

을지이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향함야 즐거히 부르세

二 감사함으로 그 압혜 나아가서 그를 향함야 시로 즐거히 부르세

三 대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크신 왕이시니 모든 신보다 높음시도다

四 저의 길은 곳이다 그 손에 있고 산의 높은 것도 그의게 속음였도다

五 그가 바다를 지으셨스니 그의게 속음였고 그 손이 또한 룩미를 창조함셨도다

六 을지이다 우리가 부복함야 절송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압혜 무릎꿇을

七 대개 그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또 우리가 그의 면역 기르시는 백성이 되며 그 손의 양이 되었스니 만일 너희가 온로 그 소리를 듣거든

八 머리바에서 함 조치 너희 무음을 감함함게 말 거시오 평야에서 맛사에

있을 때와 같이 말지어다

九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한 일을 보았도다

十 그 세티 사람이 스심년을 지내도록 나를 노역케 하였스니 내가 말하기를 이 백성의 마음이 미혹되어 버 길은 아지못한다 하였노라

十一 그리고로 내가 노역야 멩세송기를 너희가 나의 암색에 드러오지 못 송리라 하였노라

美

너희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원 새 사람들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二 너희는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 일홍을 찬미하며 날마다 그 구원하신 은혜를 밝히 드러낼지어다

三 맞당히 그 영광을 열방에 베풀고 그 이적을 만민 중에 베풀지어다

四 대개 여호와는 크시니 극진히 찬송을 거시오 또한 모든 신보다 두려워 송리록다

五 대개 이방의 모든 신은 헛거시오 오직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신이로다

六 그 암혜 존귀와 위엄이 있고 그 생소케 부럽과 아름다움이 있도다

七 만민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八 그 일홍의 합당함의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며 제물을 가지고 그 면에 드러낼지어다

九 거룩하고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원 새 사람들이 그 암혜서 경외할지어다

十 열방 중에서 너희가 빛을 기를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니 세계가 굿게 섰고 흔들리지 아니함은지라 또 공의로 만민을 판단하시리라 송라

十一 하늘이 깃버하며 땅이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 가운데 찬만할 거시 소리를 발하고

十二 빛과 그 가운데 있는 거시 다 즐거워 쉰지어다 그리하면 수풀의 모든 나무도 높히 부르리로다

十三 이는 여호와 암혜 할 거시라 그가 오사 땅을 판단하시되 공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되 진실함심으로 만민을 판단하시리로다

美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니 땅이 즐거워하고 바다와 샘도 깃버할지어다

二 구름과 어두움이 그들 에워싸고 공의와 심판이 그 보좌의 리가 되었도다
 三 불이 여호와 함께서 횡행야 스면으로 무른 원수를 티오도다
 四 그의 번개가 세계에 빛쳤었스니 싸이 보고 진동홍였도다
 五 산들이 여호와 함께 밀과 못치 못았스니 이는 원사를 주관하시느 주의
 六 함회로다
 七 하들이 그 공의를 드러버니 만민이 다 그 영광을 보았도다
 八 삭인 우상을 섬기느자와 우상으로써 조롱하느자 다 붓그러움을
 九 불지니 모든 신들이 나히느 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十 시온이 웃고 깃버흥며 유다의 생음들이 다 즐거움은 여호와
 十一 판단음심을 인함으로 소이다
 十二 여호와여 원사보다 지극히 높으시며 모든 신보다 더욱 높으시도다
 十三 여호와를 사랑하느자들이 악을 무위흥라 경건하느자의 경음을 보전흥사
 十四 악인의 손에서 면지시느도다
 十五 울음자를 위흥야 빛치 있게 흥고 무음이 정죄하느자를 위흥야 즐거움이
 十六 있게 흥섯도다

十七 이룩온자들과 나히느 여호와를 인흥야 깃버흥고 그 거룩흥신 임음을
 十八 사해할지어다
 十九 제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흥라 대개 그 귀이흥 임음을 흥흥섯스니 그
 二十 울음 손과 그 거룩흥신 팔이 임의 구원을 베풀섯도다
 二十一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흥섯고 그 의를 만주 인의 눈 함께 밝히
 二十二 보이섯도다
 二十三 이스라엘 집에 베풀신 인드와 생살음심을 기억흥섯스니 싸의 모든 뜻치
 二十四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二十五 원사여 즐거움으로 여호와께 부르라 소리를 들며 높히 부르고
 二十六 찬양흥지어다
 二十七 거문고를 흥고 여호와께 찬양흥 거시니 거문고와 깃분 소리로 흥
 二十八 거시로다
 二十九 라발과 각성으로 왕 여호와 함께 즐거움 소리를 발흥지어다
 三十 바다와 그 가운데 출흥흥 거시 맛당히 소리를 발흥지니 세계와 거
 三十一 거흥자가 흥흥 그 리흥지어다

- 八 큰 물이 손바닥을 치는 자와 죽어 즐거워할 거시오 산들이 울며 즐거워
부를지어다
- 九 이는 여호와 함께 할 거시오 그가 오사 새를 판단응시되 공의로 세계를
판단응시고 바른 리치로 만민을 판단응시리로다
- 一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니 만민이 떨 거시오 제물들을 우에 안지셨스니
새이 진동응시리로다
- 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며 크시고 만민 우에 지극히 높으신이로다
- 三 너희가 크시고 두려오신 일중을 찬양할지니 그는 거룩응시도다
- 四 능한 모든 왕이 공의를 즐거워응시도다 주께서 바른 리치를 세우시고
야곱의 집에서 공평과 인의를 행응시도다
- 五 너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불허 그 밧등상 앞에 경배응라 그가
거룩응시도다
- 六 그 제사장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일중을 불너 알외노자 중에
삼우엘이 있셔서 여호와께 불너 알외며 곳 응답응셨도다
- 七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응셨스니 너희가 그 주신 도리와 룰례를

- 적히엿도다
 - 八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며 너희께 응답응시고 너희 행음대로 갚으셨스나
너희 죄를 사함신 하나님으로손이다
 - 九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불허고 그 거룩한 산에서 경배할지니
대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응시도다
- 지혜의
지혜의
- 一 원과 사람들을아 너희는 여호와께 즐거움으로 부를지어다
 - 二 너희는 깃쁨으로 여호와의를 섬기며 노래를 불너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 三 너희가 알 거슨 여호와는 하나님시오 우리를 지으신자시니 우리가
그의께 속송야 그의 덕성이오 그의 머피 기리시느 양이로다
 - 四 너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드러가며 찬송함으로 그 들에 드러가서
사해응고 그 일중을 찬송함지어다
 - 五 대개 여호와는 선응시니 그 인종응심이 영원스지 있고 그 성실응심이
티티로 밋치리로다

여호와의
지략의

- 一 내가 인츠와 공의를 칭송송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줄를 찬양송리이다
- 二 내가 완전한 길에 지혜롭게 행송리니 주께서 언제 내게 탐송시리잇가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도 행송팠나이다
- 三 내가 비루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아니송고 내가 비도원자의 형실을
할송노니 그런 거시 내게 손기를 용납지아니송을 거시오
- 四 간사한 마음이 내게 떠나리니 악한 일을 내가 도모지 알지아니송리로다
- 五 은밀히 그 리웃을 참송송노자를 내가 선택 된이 오만송고 마음이
표만원자를 내가 용납지아니송리로다
- 六 내가 눈으로 이 산에 축성원자를 보아 나와 할제 거송게 송리니
완전한 길에 행송노자는 나를 섬기리로다
- 七 궤환원자가 내 짐 앞에 거송지못송고 거짓 말송노자가 내 눈 앞에
서지못송리로다
- 八 아첨마다 내가 이 산의 모든 악인을 멸송야 무릇 악을 행송노자를

여호와의 성에서 살송리로다

근근한 사람이 라심송야 여호와 앞에서
그 의 롱함을 고송노 기도라

- 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드르시고 나의 부르지지는 소리를 주 앞에
상달송게 송시옵쇼셔
- 二 내가 괴로움 받은 날에 주의 냇를 내게 그리우지마시며 귀를 내게
기우리시고 내가 알외는 날에 속히 내게 응대송쇼셔
- 三 대개 나의 사는 날이 연의 곳치 쇼멸송고 내 뼈가 불 붙은 나무와
곳치 살아지느도다
- 四 내 마음이 불 곳치 시들어 무르니 내가 음식 먹기를 잊느도다
- 五 내가 탄식송는 소리를 인송야 살이 뼈에 붙혔도다
- 六 내가 틀에 있는 데호재와 곳고 빈리에 있는 부형이와 곳하졌도다
- 七 내가 썩여 있스니 짐승 썩다이에 있는 외록은 짐새와 곳도다
- 八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휘방송고 나를 치라고 성대노자는 나를 두고
망세송느도다

九 내가 저 먹기를 식물 및 저 농며 나의 마시는 거슨 단물이 섞기였도다
 十 이는 주의 노총심과 흥흥심을 인함이니 주께서 나를 들었다가
 十一 내 날이 석양 그림자와 웃으니 내가 볼 곳저 못났도다
 十二 여호와여 주께서 영원까지 거홍시리니 주를 귀약함이 디티로 잇스리이다
 十三 주께서 내려나샤 시온을 긍휼히 녀이실지니 대개 그를 이석히 녀이실
 十四 때라 곳 영흥신 때가 니름이로소이다
 十五 대개 주의 모든 종이 시온의 통를 즐거워하며 그 티살이라도 이석히
 十六 녀이느도다
 十七 이방이 여호와와 의 인함을 두려워하며 싸 우에 만왕이 주의 영광을
 十八 두려워함리이다
 十九 대개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주의 영광으로 내려나셨도다
 二十 중평을자의 귀도를 드르셨스며 그 귀도를 영수히 녀이지아니함셨도다
 廿一 장리의 세팅을 위함야 이 일을 귀록을 거시니 내실 빛성이 여호와를
 廿二 찬양함리도다

十九 대개 여호와께서 그 노름은 성소에서 내려다 보시고 하늘노부터 싸를
 二十 감찰함샤
 廿一 가친자의 탄식을 드르려함시며 죽이기로 영흥자를 웃고저함셨도다
 廿二 이는 여호와와 의 인함을 시온에서 말함게 함시고 그 찬송을 예루살렘에서
 廿三 함께 흥심이로다
 廿四 곳 빛성들과 만주이 모히여 여호와를 밧드러 섬길 때로다
 廿五 주께서 내 침을 잠도에서 쇠음게 함시며 나의 년세를 쯤게 흥셨도다
 廿六 내가 말함기를 내 하나님이며 중년에 나를 다러가지마옵쇼셔 주의
 廿七 혀는 디티로 무궁함도다
 廿八 주께서 제로부터 싸의 터를 세우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廿九 거시로소이다
 三十 그 거슨 장초트 멸망을 거시나 오직 주는 제실 거시오 그 거시 마 웃과
 卅一 곳저 낮아지리니 주께서 웃 처럼 그 거술 변역함시며 다 변역함리이다
 卅二 오직 주는 여전함야 년세가 다함이 업스리이다
 卅三 주의 모든 종이 죽여가 흥상 잇스리니 그 죽손이 곳게 주 암해 서리도다

다윗의
시백

三

- 一 대 령훈아 여호와를 찬송하세 내 속이 있는 거시다 그 거룩하신
일들을 찬송할지어다
- 二 대 령훈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모든 은혜를 잊지말지어다
- 三 그가 네 불의들을 사중시며 모든 병을 곳치시느니라
- 四 그가 네 목숨을 사망에서 구속하시며 인종과 공출과 면류관을
썩우시느니라
- 五 그가 네 장성을 뼈에 아름다운 거스로 풍족하게 향사 다시 젊어
독슈리와 못치 강건케 하시느니라
- 六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베푸시며 악제를 당한 모든자를 위하시
판단하시느니라
- 七 그 길을 모세의게는 알게 하시고 행음심을 이스라엘 조손의게는
보이셨도다
- 八 여호와께서 공출과 은혜가 참만하시 노음심을 더하시며 인종행음이

풍족하시도다

- 九 쉬지지심을 흥상 하시니 하시며 노음심을 영원히 품지아니하시리로다
- 十 우리 죄대로 우리를 티잡지아니하시고 우리의 불의대로 우리에게
갑지아니하셨도다
- 十一 사에서 하늘이 들은 것 못치 인종행심이 조귀를 두려워하느니라
크시도다
- 十二 동이 서에서 먼 것 못치 우리의게서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도다
- 十三 아비가 그 조사를 불쌍히 여기는 것 못치 여호와께서 조귀를 두려워하느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도다
- 十四 우리의 부절을 아시고 우리가 흠이 된 것을 피하시도다
- 十五 사람은 그 사느 날이 불과 못고 불에 튀는 썩화 못도다
- 十六 대개 바람이 지나간즉 엎서지고 그 있던 곳도 다시 알지못함리로다
- 十七 오직 여호와의 인종행심이 두려워하느니라 영원히 영원까지
계시고 그 음행함이 조손손손서 나르니
- 十八 곳 그 인종행심을 지히느니라 그 법들을 피하시야 행음느니라
계시

나르리로다

十九 여호와께서 하늘에 그 보좌를 세우셨스니 그 나라는 만유를 통할옵시도다

二十 너희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송을 지어다 이는 능력이 구비함이며 그 명을
준행함야 그 말씀을 시는 소리를 듣는 자로다

二十一 너희 모든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송을 지어다 이는 그 샅을 밧들어
섬기느니라

二十二 지으심을 밧은 모든 너희들이 여호와를 찬송을 지어다 이는 작처에
있서 다스림을 밧은 만물이로다 내 령은야 여호와를 찬송을 지어다

三 내 령은야 여호와를 찬송을 지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주는 지극히 크샤
영광과 위엄을 넘으셨느이다

二十三 빛으로 조그를 덮으시기를 옷 넘기듯함시고 하늘을 펴시기를 휘장
치듯함시도다

二十四 주께서 물에서 그 천지의 모양을 세우시고 구름으로 그 슈레를 삼으시며
바람 불기 위해서 행함시느이다

二十五 주께서 바람으로 스자를 삼으시고 불꽃으로 그 부리느자를

삼으시느이다

二十六 주께서 싸의 티를 세우샤 영원히 움직이지아 나케 흥셨느이다

二十七 주께서 깊은 물노 싸를 덮으시기를 옷 넘기듯함시매 물이 산 위에
섯도다

二十八 주께서 물을 꾸지지신즉 도망하고 주께서 우뢰 소리를 발음신즉 물이
썰나가도다

二十九 산은 소사나고 골짜기는 느저저서 주께서 명함신 곳에 나르렸느이다

三十 주께서 티경을 명함샤 물노 넘지못함게 흥심은 다시 도라와서 싸를
넘지못함게 흥심이로다

三十一 심으로 골짜기에 소사나케 흥시니 산 스이에 흐르느도다

三十二 들 증성이 마시고 산 라귀가 험할동도다

三十三 공중에 새가 그 근처에 깃드리고 나무가지 스이에서 소리를 발음도다

三十四 주께서 그 면각에서 모든 산에 물을 주시며 주의 일을 인함야 싸의
열리가 풍족함니이다

三十五 물을 나케 흥샤 룽축을 기르시고 또 취소를 나케 흥샤 사람의 손용이

- 十五 퇴게 흥시며 식물을 따에서 나게 흥시켰스니
꽃사들의 무음을 깃쁘게 흥는 포도주와 사람의 낮출 유행케 흥는
기름과 사람의 심령을 기르는 양식이로다
- 十六 여호와의 나무들이 무성흥였스니 꽃그심으신바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 十七 재는 그 스이에 깃드리고 하은 전 나무를 짐으로 삼는도다
- 十八 높흔 산은 산 염소의 거흥는 곳이오 바회는 록기의 숨는 곳이로다
- 十九 쥬쳐서 틀을 지으샤 절기를 명응시고 흥는 그 지는 곳을 알도다
- 二十 쥬쳐서 어루움을 베프샤 밤이 퇴게 흥신즉 수풀의 증성이 다 나와서
든나는도다
- 二十一 젊은 스즈가 부르지지며 잠을 거슬 찾고 먹을 거슬 하느님께
구흥는도다
- 二十二 희가 뜻으며 증성이 훗혀져 제 굴에 었티이로다
- 二十三 사람은 일 흥러 나와서 쥬쳐서 지 슈고흥는도다
- 二十四 여호와여 지으신 거시 었지 만흐니잇가 다 지혜로 지으셨스니 쥬의
부요함이 따헤 드루는니이다

- 二十五 더기 바다가 잇서 크고 넓으며 그 속에 무수흔 동물이 잇스니 꽃크고
적은 성물이로다
- 二十六 거기 비가 잇서 왕티흥며 쥬흔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는이다
- 二十七 이 거시 다 쥬를 우러러 보니 뼈를 쓰라 쥬쳐서 먹을 거슬 주시는이다
- 二十八 쥬쳐서 주시며 연희들이 거두고 손을 펴샤 은혜를 베프시며 연희들이
비부름을 었은이다
- 二十九 쥬쳐서 낮출 그리우신즉 연희들이 두려워흥오며 쥬쳐서 그 귀운을
산흔신즉 연희들이 죽어 진도로 노라가리이다
- 三十 쥬쳐서 신령흔 귀운을 베프샤 연희들을 지으시고 쥬 디면을 새롭케
흥시는이다
- 三十一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잇슬지니 여호와여 그 지으신 거슬
깃쁘흥실지이다
- 三十二 쥬쳐서 따를 모신즉 진똥흥고 산을 믿지신즉 연기가 내려나도다
- 三十三 내가 살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흥고 내가 죽기 쥬지 배 하느님을 노래로
찬양흥리로다

三四 주께서 나의 무장을 아름답게 꾸이소서 내가 여호와를 인종하
 깃버응리토다

三五 죄인을 사해서 소멸하고 악인을 엄시응음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三六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일들을 불너 알외고 그 영광신 거슬 민간에
 전파할지어다

三七 그 압혜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귀이힘 일을 전파할지어다

三八 너희는 그 거룩하신 일들을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三九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영원까지 그 일들을 구할지어다

四〇 그 종 아브라함의 두손 아담의 족속 곳 새신바 너희를아

四一 그 영광신 귀이힘 일을 귀양하라 그 이적과 그 임의로 판단하신
 거시토다

四二 그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 모든 판단이 원사에 잇도다

四三 주께서 영원부터 그 언약을 귀양하셨스니 그 명하신 말씀이 천지까지

너리도다

四四 곳 아브라함에게 응신 언약이오 이삭에게 응신 명세토다

四五 이 거슨 야곱에게 법률노 곳에 명응여주신 거시오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신 언약이로 명응여주신 거시토다

四六 열으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게 느흔 귀염이 되게
 할리라 응셨도다

四七 이는 너희 인수가 적을 떠나 미우 적고 그 사에 나그네가 되었을
 때로다

四八 그 때에 이 디방이로서 먼 디방에 류리응고 이 나라로서 다른 나라에
 단녔도다

四九 사롬이 너희를 해응기를 용납지아너응시고 또 너희를 위응사 멸양을
 썩지져

五〇 열으샤티 나의 기름 부운자를 믿지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응지말나
 응셨도다

五一 또 용변을 부르샤 그 사에 림응게 응시고 그 의뢰응는 양식을 다

산으셨도다

- 十七 흔 사람들을 더최보다 먼저 보내셨스니 음셈이 팔려 종이 되엿도다
- 十八 착고에 그 밭을 상송케 하니 몸이 쇠사슬에 얽혔도다
- 十九 그 말이 음침동기를 기다리니 여호와와 말슴이 더를 전단으셨도다
- 二十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불러 노흐니 곳 빙성을 다스리느자가 내어 노흔 거시도다
- 二十一 또 세워 그 짐 주인을 삼아 그 모든 재물을 다스리게 하고
- 二十二 임의로 그 군신을 다스리며 또 지혜로 그 대신을 그르치게 흥엿도다
- 二十三 또 혼 이^스라^엘이 해골에 드러가고 야곰이 함새에 나그대 되엿도다
- 二十四 그 빙성을 심히 번성케 흥시키고 그 원슈보다 강송케 흥시켰도다
- 二十五 쥬셔셔 원슈의 무음으로 그 빙성을 무위흥케 흥시매 그 종들을 해송 기^를 해송 엿도다
- 二十六 그 종 모세와 그 씨신 아론을 보내셨도다
- 二十七 더최가 그 빙성 중에서 그 정조를 보이코 함 새에서 귀이한 일을 행송 엿도다

- 二十八 어무음을 베포샤 어름케 흥시매 더최가 그 명을 어그지아니 흥엿도다
- 二十九 그 물을 변송야 피가 되게 흥샤 그 물고 기들^을 죽이^셨도다
- 三十 그 새에 기고^리가 번성^흥야 그 님군^의 천궁^에도 잇섯도다
- 三十一 명^송신^족 파리^새가 성기^고 스방^에 니가 성졌도다
- 三十二 비^를 티신^흥야 우박^을 느리^시며 번기^불을 그 새에 베프^섯도다
- 三十三 그 포도 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고 그 스방^의 나무^를 씩그^섯도다
- 三十四 명^송신^족 메죽^이가 성기^고 또혼 풀 버레^가 수 업시^성겨^셔
- 三十五 그 새의 모든 치소^를 먹으며 그 밭에 모든 열립^을 먹었도다
- 三十六 또혼 그 새의 모든 맛 아들^을 치시^니 곳 강장^을 새에 처음^{으로} 나온^자 로다
- 三十七 빙성^을 잇고^샤 금은^을 가지^고 나오^케 흥^시니 그 지파 중에 피곤^을 사름^이 흥나^도 업섯도다
- 三十八 더최가 나갈 때에 해골 사름^이 깃버^흥은 더최^를 두려^워흥^이 로다
- 三十九 구름^을 퍼샤 덤흥^시고 불을 베포^샤 밤에 불케 흥^{시켰}도다
- 四十 더최가 구흥^족 모치^락 이를 모흥^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더최^를 비

부르께 송섯도다
 四 밧섬을 쉼드리신즉 물이 수사 모른곳에 흐르기를 하슈 또치 흥엿도다
 四二 대개 그 거룩하신말씀을 귀엿흥시고 또흔 그 종아브라함을 귀엿흥섯도다
 四三 그 빙성을 인도동야 깃쁨으로 나오게 흥시니 그 탁흥신 빙성이 노래흥며 나왔도다
 四四 열방의 사를 너희게 주섯스니 너희가 여러 빙성의 슈고할 거슬 귀엿
 四五 으로 취흥엿도다
 이노 그 전례를 좃고 그 룰법을 저히게 흥심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동라 여호와는 선흥시니 그의게 사례흥세 대개 그 조비흥심이 영원토록 잇도다
 二 누가 능히 여호와의 크신 능을 말흥며 누가 능히 그 덕을 다 말흥리오
 三 그 법도를 좃드나자가 복이 잇스니 흥상 공의를 행흥인자로다
 四 여호와여 주의 빙성에게 베프시노 은혜로 나를 귀엿흥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흥사

眞

五 나로 주께서 새신자의 흥양흥을 보게 흥시고 주의 나라의 즐거움으로
 六 즐겁게 흥시며 주의 귀엿흥으로 조람흥게 흥쇼셔
 七 우리가 열조와 흥가지로 죄를 지엿고 불의흥을 행흥고 악을 행흥엿도다
 八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흥흥신 이져를 아지못흥고 주의 만흥신 조비를 귀엿지아니흥고 바다 곳 흥흥에서 거여흥엿도다
 九 그러나 조의 일흥을 위흥야 구원흥사 크신 권흥을 나타내섯도다
 十 흥흥을 쉼드리신즉 모르니 빙성이 바다에 흥흥기를 광야 뿔흥게 흥섯도다
 十一 너희를 위흥흥노자의 손에서 구원흥시고 원슈의 손에서 구속흥섯도다
 十二 이에 물이 그 덕을 열히 흥나도 쉼치아니흥엿도다
 十三 그 때에 너희가 그 말흥을 밋고 노래로 찬양흥엿도다
 十四 너희가 오해지아니흥야 그 흥흥심을 니져보리고 그 쑥을 기도리지아
 十五 이에 광야에서 큰 욱흥을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흥엿도다
 十六 하나님이 드티여 구흥는 거슬 주섯스나 오직 그 흥흥은 파리흥게